

# 약함의 선교

## (저자:이영 /출판사:좋은땅)

작성일: 2023년 12월 26일 / 작성자: 윤경순

### 1. 내용(줄거리) 요약

이영 선교사의 남미 에콰도르 사역 중에서 첫 번째 기간(1995-1997)의 기도편지와 일기를 엮은 것이다. 선교지에서의 문화적응과 사역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저자는 선교사로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실수하고 실패한 경험들을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선교사의 실제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책이다.

### 2. 소감

이 책을 통해 막연했던 선교사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유익했다. 저자는 자신의 치부까지도 자세히 언급하여 선교사도 연약함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저자의 선교지인 에콰도르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어 마치 그 나라를 다녀 온 듯하다. 선교사님들의 기쁨, 어려움, 고민 등을 이해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인디헤나 원주민의 삶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어려운 삶에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겸손히 섬기는 모습이 도전되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필수요소인 물, 전기, 화장실까지도 부족한 가난한 사람들!!! 열악한 환경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기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며 현재 나의 불편한 환경에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주변에 선교사님은 계시지만 현지에서의 삶이 막연하고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책의 내용이 주로 기도 편지여서 그들의 생활을 낱낱이 알게 되었다. 그들도 인간이기에 생활비, 관계, 가정의 책임, 사역의 방향성 등을 고민하여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성공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교사로서 잘한 것만 기록하지 않고 잘 못 한 것, 판단한 것, 교만한 것 등을 솔직히 고백해서 더 위로가 되고 유익했다. 완벽한 자만이 선교사가 되는 게 연약해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

현지에서의 불편한 교통, 비위생적인 음식 문화,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회의 문화, 어리숙한 선교사에게 사기를 치는 현지인들을 참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선교지의 삶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게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하며 그들의 음식문화에 동화되려는 선교사님 부부의 모습은 눈물겹기만 하다.

경쟁과 성적 위주의 학교 문화, 교사를 존중하지 않고 특하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는 학부모님들, 부요한 환경에 더 이상 학교 교육에 열심을 내지 않는 학생들을 보며 선교지의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었다. 교육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톡톡말망한 눈망울로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기에... 그러나 선교지는 또 다른 힘들어 있는 곳이다. 선교지를 현재의 힘들에서 벗어나려는 회피처로 삼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부르실 때까지 한국의 힘든 교육적 상황을 소망처로 굳건히 서서 소망을 주는 자로 살아야겠다.

저자는 대학시절부터 자신의 은사를 따라 신학을 하고 교회에서 목사로 3년간 경험을 쌓고 다른 선교사 부부화 함께 선교지로 떠나는 등 선교를 잘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선교지에서도 다른 선교사 부

부와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외로운 선교지에서 위로를 받았다. 또한 자신의 은사를 따라 현지의 많은 시골 교회를 돌보고 목사님들을 교육하며 교회 청년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웠다. 현지에서 필요를 잘 도우려면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야만 한다.

선교지가 힘들어도 특권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한국의 IMF경제위기 상황에서 현지인들이 저자의 생활비를 헌금해 준 일이 있었는데 그 헌금은 과부의 두렵듯처럼 가난 속에서 한 헌금이였다. 많은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끊고 선교사들이 귀국하는 상황에서 현지인들이 모아 준 헌금은 저자에게 큰 감동과 간증이 되었다. 절박함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선교지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목도하는 것은 선교사의 특권이란 생각이 들었다.

### 3. 토론질문

- 1) 하브루타 교육방법이 우리교육에, 우리 학교(교과, 학급)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2)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가족 하브루타를 구체적으로 실천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보려고 하시나요?
- 3) 우리나라 교육에서 정체성 교육이 약하다는 저자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선생님은 정체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 즉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하브루타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친구, 짝, 파트너’를 뜻하며 친구라는 뜻의 ‘하베르’에서 유래했다. 이것이 ‘짝과 함께 공부하는 것으로 확대됐고, 그 공부 방법은 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하브루타는 토라나 탈무드를 공부할 때 둘 씩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답하며 대화, 토론, 논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17).

어릴 때부터 탈무드 교육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와 대화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존중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유대인 부모는 절대 아이를 강제로 앉혀놓고 억지로 공부시키지 않는다.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면 그것에 관한 질문만 던질 뿐, 아이가 직접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유도한다. 아이는 스스로 부모의 질문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발적으로 독서하고, 책을 통해 새로 얻은 생각들을 글로 정리한다. ... 그래서 유대인 부모는 늘 ‘답을 얻기 위해 스스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질문은 무엇일까’를 고민한 후 가장 좋은 질문을 골라서 아이에게 던진다(24).

유대인의 하브루타는 아이가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답을 알려주는 것을 금기한다. 대신 아이의 질문에 대해 부모가 다시 반문하여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이끌거나, 아이와 함께 책을 찾아보면서 그 질문의 주제와 관련된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 부모는 자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28).

자기주도학습의 비밀:

질문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간다. 질문이 있어야 호기심이 생기고 내적 동기가 일어나며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게 된다.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물리학을 넘어서는 나만의 물리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상대성 이론이 등장했다. 프로이트를 이끈 질문은 ‘무엇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가?’였고, 그 질문이 무의식과 정신분석의 시계로 안내했다. 아이에게 평생 질문을 갖게 한다면 아이는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 일생 동안 열정과 능력을 다해 몰두할 것이다. 자기주도학습을 이끄는 것도 질문이다. 질문이 생겨야 책을 찾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교사에게 질문하면서 스스로 탐구하게 된다(29).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그때까지 배운 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힘이 되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뿐이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이유는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지성과 감성을 연마하여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이다. 오랫동안 한 가지에 매진해 온 사람에게는 예리한 안목과 통찰력이 생긴다. 순간의 직감에 따라 내려지는 결단은 그때까지 쌓아올린 지혜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 직감이 바로 통찰력이다. 배운다는 것은 순간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한 준비작업인 것이다. 하브루타는 그런 통찰력을 기르는데 아주 탁월한 방법이다(30).

하브루타는 탐색 과정 자체에 몰두시키는 학생 중심 학습법의 독특한 형태이다. ... 하브루타 학습을 활용하고 싶다면, 교사의 역할이 정보를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의 발견을 촉진하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부터 이해해야 한다. ... 하브루타는 교사가 학생들에게서 정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하여 자기만의 사고 방법을 갈고닦는 데 중점을 둔다(33).

손 다음으로 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입이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어릴 때는 자극하는 데 손이 크게 작용하지만, 자라면서 점점 입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젓가락 문화 덕분에 IQ는 높지만 그 이후 토론과 논쟁이 낯선 문화 속에서 입을 사용할 기회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에서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떠들지 마!” 같은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45).

